



기독교 정치와 기독교 정당이 왜 필요한가?

성 희 찬

다음 내용은 네덜란드 기독교 정당 중 하나인 GPV (Gereformeerde Politiek Verbond: 개혁주의정치연맹-31조파 개혁교회가 세운 정당; 지금은 ‘기독교 연합’) 에서 발간한 <교회와 정당> 이라는 소책자에서 제가 일부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교회와 정치와 정당의 관계를 비교적 잘 다루었다고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1. 신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살 것을 부름받았다.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분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따라서 신자의 정치적 생활도 교회 당회의 감독과 권징 아래 있다. 이 말은 신자의 정치적 생활이 기독교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2. 교회와 정부는 부름과 직무가 다르나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즉 교회는 복음 전파의 직무를 가졌고 정부는 사회 질서와 법을 유지할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와 정부의 직분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루터와 아브라함 카이퍼의 견해를 살필 필요가 있다.
 - 1) 루터: “군주가 신자일 수 있지만 신자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로서 통치한다” 고 말했다. 즉 군주가 한 인격으로서 신자일 수 있지만 군주직이라는 그의 직무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 2) 과거 네덜란드 반혁명당을 창설한 카이퍼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편다. 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직분자가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한다고 했다. 즉 이 이론은 결과적으로 중립 정부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카이퍼의 일반은총 개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그 뒤 반혁명당의 정강이 된다.
 - 3) 그러나 교회 회원과 시민, 교회 직분자와 정부의 직분자 사이에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회의 감독 아래 있는 정부의 직분자 뿐 아니라 정부 역시 (정부의 정책을 포함하여)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3. 정당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익 정당, 정책 정당, 원리 정당
 - 1) 권익 정당: 특정 그룹의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노동당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신자는 특정 그룹의 특정 권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신자의 정치적 소명은 의로운 권익에 있다.
 - 2) 정책 정당: 일련의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둘러싸고 지지자를 찾는다. 정책 내용은 다수의 표결로 결정된다. 여기에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표결을 토대로 정책이 결정되기에 정책 사이에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이념적인 면에서 정책이 결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3) 따라서 기독교인의 정치적 소명은 특정 그룹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책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기독교인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원리’ 의 문제이고 ‘원리의 투쟁’ 에 관한 문제다. 기독교적 정치는, 예를 들어 정부의 직무나 정책은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고백의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4) 따라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 원리에 바탕을 둔 정당의 당원이 되고 그 정당의 이념을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교회 지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체들이 비 (非) 개혁주의 정당의 이념, 예컨대 자유주의, 혁명 이념을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면 이것이 교회에 파괴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 신자들은 특히 직분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사상과 함께 그기에 합당한 바른 영적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삶은 하나다. 교회든, 정치나 사회 생활이든 ‘개악’ (變形: deformation, 개혁-reformation 과 반대말) 이라는 위험부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 통일성을 혼드는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 정치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왜 기독교 정당 형성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필요성이 나온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